

부활한 역사 이정재, 생애 첫 3관왕

(보성군청)



김덕현 멀리뛰기 이어 세단뛰기 금 2관왕 여고생 공사 김민정·한경희 단체서도 금

전남 역도 이정재(보성군청)가 금메달 3개를 동시에 들어올렸다. 광주 수영 대표 김달은(하이코리아)은 평영 50m에서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이정재(보성군청)가 10일 저녁 끝난 역도 남자 일반부 77kg에서 생애 처음으로 전국체전 3관왕에 올랐다. 이정재는 인상 147kg·용상 181kg·합계

328kg을 들어올리며 금메달 3개를 싹쓸이했다. 아시안게임 은메달 리스트 이정재는 그동안 출전했던 전국체전에서는 금메달 하나를 따는데 그쳤지만, 올 시즌 고향인 보성군청으로 소속을 옮긴 뒤 3관왕에 올라 부활을 알렸다. 김달은은 11일 열린 제 91회 전국체전 수영 일반부 평영 50m에서 쌍둥이 언니 김고은을 2위로 따돌리고 2년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는 고등부 자유형 1500m 고영효(상무고)의 우승으로 이날 수영에서만 2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육상국가대표 김덕현(광주시청)도 멀리뛰기에 이어 세단 뛰기에서 16.79m로 1위에 오르며 대회 2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전남 대회신기록으로 400m계주 금메달을 차지했던 광주시청 육상팀은 1600m계주에서는 은메달을 더했다. 펜싱 에페 단체의 서구청과 정구 남고부의 동선고도 광주에 귀중한 금메달을 선물했다. 양궁 여고부 60m와 70m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던 김민정과 한경희(순천여고)는 이날 단체전에서 박지훈·이유미와 함께 1위를 기록하며 대

회 두 번째 금메달을 따냈다. 김진욱(전남태권도협회)은 태권도 남자 일반 +87kg서 금빛 발차기를 선보였고, 최복음(광양시청)은 볼링 마스터스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이슬아(고흥산업과학고)도 여고부 볼링 마스터스에서 은메달을 가져갔다. 대회 마지막날인 12일 광주는 단체종목에서 두 개의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호남대 축구는 충북대표 건국대와 대회 마지막 경기를 갖는다. 광양제철고 축구도 서울 장훈고와 금메달을 놓고 최종 승부를 벌인다. 광주일고 하키부도 경남 김해고와 우승을 다툰다. /진주=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쉽다! 광주일고 야구 약체 대전고에 3대 4 탈미

시즌 3연패에 도전했던 광주일고가 약체 대전고에 탈미를 잡았다. 광주일고가 11일 진해공설야구장에서 열린 대전고와의 전국체전 고등부 야구 준결승에서 3-4로 패했다. 광주일고의 선발 이정호가 3회초 1사 1-2루에서 대전고 박기환에게 3루타를 허용하면서 2점을 먼저 내줬다. 광주일고는 3회말 조현준의 볼넷과 백왕중의 2루타로 만든 1사 2-3루에서 상대 1루수의 실책에 힘입어 2-2 동점을 만들었다. 4회말에는 1루수로 선발 출장한 유창식의 1타점 2루타로 3-2 역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5회초 유격수 송구 실책 등으로 3-4로 전세가 뒤집혔다. 광주일고는 에이스 유창식을 마운드에 투입했지만, 점수를 뽑는데 실패하며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광주는 추고에서 금호고가 광양제철고에게 1-3으로 패하며 준결승 진출이 좌절된 뒤, 고교야구 우승후보인 광주일고마저 순위 싸움중인 대전에 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김여울기자 wool@



날으는 스케이트보드 캐나다 출신 프로 스케이트 보더 피에르 루크 게그논이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엔시니타스의 한 수영장에서 열린 스포츠 기금마련 행사에서 멋진 회전 묘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평영 50m 금메달 김달은(왼쪽)·은메달 고은의 자매. /연합뉴스

빛났다! 동생들

체전 광주·전남 형제·자매 대결

‘동생만한 형’은 없었다. 전국체전에서 벌어진 광주·전남 형제대표들의 대결이 아우의 승리로 끝났다. 김고은·달은(이상 하이코리아) 쌍둥이 자매가 11일 창원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평영 50m에서 광주에 금메달과 은메달을 선물했다. ‘언어자매’의 대결로 눈길을 끈 승부는 김달은이 언니 김고은보다 0.66초 앞서면서 동생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자매는 12일 혼계영 400m에서는 메달 수확을 위해 힘을 합치게 된다. 사이클 전남대표 나희경·아름(이상 나주시청)자매는 이번 대회서 5개의 금메달과 은메달 1개를 합작했다. 이중 4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은 동생 아름이 따냈다. 체조선선 누나 배물음(전남대 3년)과 동생 가람(광주체고 3년) 남매의 대결이 주목을 받았다. 누나 배물음이 마루 은메달과 단체종합 동메달을 따내는 사이 동생 가람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개인종합에서 우승하며 광주에 첫 금메달을 선물한데 이어, 링에서도 금빛 연기를 선보이며 2관왕이 된 것. 전남의 ‘레슬링 삼형제’중에서도 막내 이지연(함평골프고 3년)이 그레코로만형 50kg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형들을 앞질렀다. 둘째 이주연(한국체대 4년)이 그레코로만형 66kg에서 동메달을 가져갔지만 말형 이영연(함평군청)은 입상에 실패했다. 배구에서도 형제의 희비가 엇갈렸다. 김진범(벌교제일고 3년)과 김진환(조선대 2년) 두 형제는 전남과 광주 대표로 나섰다. 동생 김진범은 11일 열린 준결승에서 팀이 경기대표 송림고를 세트스코어 3-0으로 제압하면서 은메달을 확보해 두었다. 하지만 형 김진환은 조선대가 예선에서 탈락하면서 알찌각치 짐을 꾸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즈 ‘황제’ 자리에서 내려오다

영 웨스트우드 차기 예약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5년 넘게 지켜온 세계 랭킹 1위 자리에서 마침내 내려온다. 우즈의 ‘왕좌’를 물려받는 선수는 잉글랜드 골퍼의 간판 리 웨스트우드(37·사진)이다. 11일(한국시간) 끝난 유럽프로골프투어 알프 레드 던힐 링크스 챔피언십에서 공동 11위를 차지하며 랭킹 포인트를 끌어 올린 웨스트우드는 11월

1일자 주간 세계랭킹 1위에 오를 예정이라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웨스트우드가 세계랭킹 1위에 오르면 우즈는 282주만에 세계 넘버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 우즈는 2005년 6월12일 이후 278주 동안 세계랭킹 1위를 지켜왔으나 성추문 파동에 이어 이혼에 이르면서 추락을 거듭해왔다. 웨스트우드가 한달 뒤 세계랭킹 1위를 ‘예약’한 것은 복잡한 세계랭킹 포인트 부여 방식 때문이다.

세계랭킹 포인트는 최근 2년간 성적을 토대로 정해지며 4대 메이저대회와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남아공, 아시안 투어 대회별 가중치를 뒤 주어진다. 최근 13주 이내 대회 결과에 가중치가 주어지고 대회에 출전하지 않으면 1주마다 포인트의 92분의 1을 삭감하는 복잡한 방식이다. 웨스트우드는 원래 14일부터 열리는 유럽투어 포르투갈 마스터스에 나갈 예정이었으나 발목 통



증 탓에 일정을 변경하며 “빨라야 11월4일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월드골프 챔피언십 HSBC챔피언십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즈 역시 HSBC챔피언십 이전에는 대회에 나갈 계획이 없다. 웨스트우드가 세계 1위가 되면 람가와 세베 바에스테로스(스페인), 노먼, 니 팔도(잉글랜드), 이언 우스남(웨일스), 프레드 커플스(미국), 니콜라이스(짐바브웨), 톰 레먼(미국), 엘스, 듀발, 싱에 이어 12번째로 세계 1위에 오르는 선수가 된다. /연합뉴스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무인텔 필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